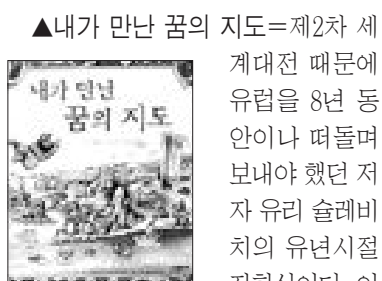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내가 만난 꿈의 지도=제2차 세계대전 때...

▲1학년 수학원정대(전2권)=초등학교 1학년 수학의 기초를...



▲어린이 각 8천원 (어린이 각 8천원) ▲알고 싶어요 공룡=공룡들이 살던 시대...

▲도서관 도깨비=책을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도서관 도깨비=책을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도서관 도깨비=책을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도서관 도깨비=책을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정겨운 풍속화는 무엇을 말해줄까=미술경론가...



▲정겨운 풍속화는 무엇을 말해줄까=미술경론가...

▲정겨운 풍속화는 무엇을 말해줄까=미술경론가...

다산은 어떻게 절대 고독을 이겨 냈을까

다산 1·2 한승원 지음

“한 편의 소설은 작가의 인생 전부입니다. 오롯이 다산에만 힘을 쏟고 싶어 13년 전 이국 해산토굴에 자리를 잡았죠. 정약응이 오면 유배생활 속에서 간혀 살았지만 그 간헐적 삶을 저술 활동으로 풀었듯 저 역시 토굴 속 나를 가둔 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작가 한승원(69)씨는 고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산”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응(1762~1836년)은 수인 화성 축조에 거중기를 사용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다. 특히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비롯해 18년간 유배생활 동안 남긴 저서만도 500여 권에 이른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기만 하다.

유배시절 다산의 마음속에서 1801년 신유박해 때의 일들은 어떻게 남았을까. 신앙인으로서 순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형인 정약중은 ‘배교’(背敎)를 택했던 다산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모든 의문에 다산은 침묵했지만 소설가 한승원이 다산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 역사소설 ‘다산 1, 2권’으로 살려냈다.

작가는 시대를 앞서간 불행한 천재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다산의 저서와 다산이 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경전까지 200여 권에 이르는 각종 문헌과 자료를 섭렵해야 했다.

한 인격체를 이해하기 위해 주변인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던 그는 다산의 제자인 초의선사를 다룬 ‘초의’(2003), 다산의 형이자 ‘자언어보’를 남긴 정약진을 다룬 ‘흑산도 하늘 길’(2005)에 이어 다산의 후학인 김정희에 대해 쓴 ‘추사’(2007)까지 정약응의 주변인물에 대한 역사소설로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소설은 다산이 결혼 60주년 회혼일에 친척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이후 임금의 총애를 받아 받듯 록 내전에서 임금을 독대했던 짧은 시절을 거쳐, 유배 생활을 마친 후 가족과의 재회를 한 뒤 소설의 도입부였던 다산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 돌아와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일생을 마무리한다.

여기에 다산의 행적은 물론 감격하고 청렴한 선비로서의 모습과 이승훈 등 함께 천주학을 공부했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에서는 그의 뛰어난 재주와 깊은 학식은 물론 인간적인 면모까지 숨김없이 드러난다.

특히 임종 직전의 다산이 꿈속에서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와, ‘천주실의’를 저술한 마테오 리치가 준 두 약을 섞어 마시는 장면은 그의 사상과 철학 속에 주자학과 천주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천주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방 우리 조선의 실정으로 보아 위험천만입니다.”(1권 284쪽)

결국 다산은 다산이 신앙이 아닌 학문으로서 천주학을 신봉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오랜 유배생활에서의 절대 고독과 이를 이겨내기 위한 한 인간의 고뇌에 초점을 맞춰 마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저자는 “어릴 때 주자학을 배우고 성년이 된 뒤에는 천주학을 여러 저서를 접한 다산의 균형 잡힌 철학은 극단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다.

〈랜덤하우스·각 권 1만원〉 /이메이기자 emlee@kwangju.co.kr

인물·사례 중심 복잡한 유럽사 맥짚기

...유럽의 역사 만프레드 마이 지음

복잡한 유럽의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왔다.

독일청소년문학상에 노미네이트 된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세계사’ 등을 집필한 만프레드 마이가 쓴 ‘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유럽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특징적인 인물과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사의 맥을 짚어낸 책이다.

저자는 ‘유럽의 탄생과 성장’, ‘근대의 수레바퀴가 굴다’, ‘평창과 모순의 시대’, ‘전쟁과 화합 그리고 미래’ 등 4부론으로 나눠 모두 49가지 키워드로 유럽 역사를 소개했다.

책은 유럽 역사의 모태인 그리스부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쳐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 유럽의 모습까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책 말미에는 유럽 36개국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실었으며 풍부한 사진자료들이 이해를 돕는다.

〈웅진지식하우스·1만 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투자의 신’ 버핏 성장과정과 투자철학

워렌 버핏 평전 앤드류 킬데리 지음

주식 투자로 세계 최대의 부를 거머쥔 워렌 버핏은 재산의 85%(약 32조원)를 기부하고 상속세 폐지를 꾸준히 반대, 강한 인상을 남겼다.

11세에 주식을 시작해 78세에 이른 지금까지도 투자에 열중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 나왔다. ‘버핏 전문가’ 앤드류 킬데리가 쓴 ‘워렌 버핏 평전’(전 2권)은 20년간 한 인물을 추적한 1천 400여쪽짜리 방대한 보고서다.

1권 ‘인물’편은 중심으로 햄버거와 콜라를 먹고, 중고차를 몰고 다니며 5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버핏의 성장과정과 생활 모습 등을 담고 있으며 2권 ‘투자’편은 버핏의 투자 철학과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300여장의 사진이 생동감을 주며 워렌 버핏이 참여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현장을 담은 DVD를 증정한다. 〈월북·세트 가격 2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워렌버핏평전

대인동상일부동산 모뎀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수원지구 건물임대 1층 330㎡ 분할가능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첨단일계공인중개사 급매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원) 062-226-0047~8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국민공인중개사 6억의 사할 기회